

# 광주~강진 고속도로 소음·먼지 민원 해결

광주 남구 주변마을 집단민원  
국민권익위 조정회의  
방음터널·방음벽·연결도로 등  
도로공사-주민들 합의안 도출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건설로 광주 송학초교와 인근 마을에 소음과 먼지 등의 피해를 우려하던 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현장을 찾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방음터널과 방음벽을 설치하는 안을 제시, 한국도로공사와 마을 주민들이 동의했기 때문이다.

18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6일 광주 남구 대촌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신청인 대표와 한국도로공사, 광주광역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동화마을 등 인근 마을주민들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로 건설계획을 수립했으나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송학초등학교와 주변 마을이 고속도로와 너무 가깝게 설계돼 소음 및 먼지 등의 피해가 우려됐다. 광주 동화마을 등 인근 주민들은 도로공사가 진행되면 마을 앞에 약 10m 높이의 독이 들어서 조망권이 저하되고 소음·먼지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음터널, 방음

벽, 저소음 포장, 교량화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해당구간을 터널과 교량 등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화마을 등 인근 마을주민 2704명은 올해 3월 초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으며,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8개월만에 해결됐다. 이날 협의에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주재했으며, 신청인 대표 등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광주광역시 부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조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국토

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 총사업비 변경협의가 완료되면, 송학초등학교 뒤편에 방음터널과 방음벽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기로 했다. 세동마을과 동화마을을 연결하는 농로(사유지)는 먼지를 줄이기 위해 포장하기로 했으며,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 옆으로 연결도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사동마을 입구에 있는 교량(서창1교)을 늘리고 고속도로 인접 마을 진입로를 직선화하기로 했다. 용두동 구간은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고, 서창동 구간은 저소음 포장을 실시하되, 과속방지턱을 위해 경찰청과 협의될 경우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소방본부 현장소통 강화 교육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6일과 7일, 15일 모두 3차례에 걸쳐 광산구 소촌동 광주소방학교에서 간부공무원의 스마트 의료지도 이해 등 '현장소통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스마트의료지도는 구급대원과 의사가 화상통화로 심장 정지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지도를 받아 처치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에는 일선 소방서 센터장과 구조대장, 탐장 등 지휘급 간부 소방공무원과 구급대원 등 총 390여 명이 참여해 현장 활동을 실습했다.

## 인플루엔자 주의보...개인위생 준수 당부

광주시는 지난 16일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감시 결과 45주(11.4~11.10)차 외래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 7.8명으로 유행기준 6.3명을 초과했다. 시는 인플루엔자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료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은 물론 임신부, 만성질환자, 50~64세 인구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방접종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시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 받을 것을 권고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북구 청백봉사상 박용신 실무관 수상

광주시 북구 세무2과 소속 박용신(48·세무7급·사진) 실무관이 '제42회 청백봉사상' 본상을 수상했다. 18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박 실무관은 지난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2회 청백봉사상 시상식에서 올해 '청백봉사상' 본상을 받았다. 1996년 8월 공직에 첫 발을 내딛은 박 실무관은 조세채권(금융결제계좌) 압류 기업 연구·전파, 지방세 납부서비스 도입·개선, 누락세원 발굴·자진납세 풍토 조성 등을 맡아왔다. 지역주택조합의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기법 연구과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세무조사 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각종 시책 개발에도 앞장섰다. 휴일에는 병원·요양원·노인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미술과 인형극 공연 등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술과 세금이야기를

를 접목시킨 '스토리텔링 매직' 맞춤형강의를 이어오고 있다. 박 실무관은 "세정업무담당하는 공무원으로써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청렴하고 따뜻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백봉사상'은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전국 5급 이하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대상 500만원, 본상 200만원), 인사 우대, 부부동반 해외시찰 기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북구는 지난 2003년부터 총 8명 수상자를 배출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속도낸다

환경부와 물순환 광주포럼  
기본계획·사업 방향 등 논의

광주시가 지난 16일 환경부와 함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도시 물순환 광주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환경부, 지자체,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 협업팀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포럼위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광주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포럼에서는 환경부가 '물순환 선도도시 추진경과 및 향후 정책방향', 광주시는 '광주시 물순환 관리 기본계획 및 사업 추진방향', 김이형 분과위원장이 '국내 도시환경에 적용가능한 생태적 LID(저영향개발) 설계기법'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이 이어졌다. 광주시는 지난 10월 시 전역을 대상으로 '물순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범지구인 상무지구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 중이다. 오는 2020년까지 295억원을 투입해 빗물이 침투할 수 있는 침투측구, 투수성 포장 등 다



지난 16일 광주시와 환경부가 주최한 '도시 물순환 광주포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는 환경부, 지자체,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양한 LID(저영향 개발) 기술을 적용하고 단위의 침투통, 침투트렌치와 같은 다수의 점진적으로 도심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LID(저영향 개발)기법은 지하수 함양, 홍수유출량 저감, 비점오염 처리, 도시기후 조절, 경관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 이정삼 환경생태국장은 "앞으로 비점오염 저감효과 극대화를 위해 주택, 아파트

지역공동체 발전 및 도심재생을 통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는 보유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활동을 펼치고, 공사 직원들은 열린 체험교육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및 사회적 가치를 고취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다문화이주여성들 강사로 초빙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송정공원역 인근), 올해 제 5 차 사회적

## 광주도시철도공사 참여형 배움활동 '하루교실' 소품 제작 등 체험수업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역세권 사회적 기업과 손잡고 참여형 배움활동 모델인 '하루교실'을 펼쳤다. 공사는 최근 광주 동구 문화전당역 인근에 위치한 저소득층 체험교육 전문 사회적기업 '다행어울림협동조합'에서 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품 제작 등의 체험수업을 진행하며 사회적 가치 향상 마인드 함양에 나섰다.

지역공동체 발전 및 도심재생을 통한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는 보유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활동을 펼치고, 공사 직원들은 열린 체험교육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및 사회적 가치를 고취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다문화이주여성들 강사로 초빙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송정공원역 인근), 올해 제 5 차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솔찬직업실'(금남로 4가역 인근)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김성호 사장은 "공사는 지난해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를 마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배움활동 인프라 조성에 매진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무안 일로읍, 토지 6000평, 10억 급매



- ✓ 전남 무안군 월암리 62-12, 15, 16번지
- ✓ 임야 6000평, 도시지역 8~10M 도로접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
- ✓ 토목공사 완료, 전원주택지/타운하우스 최적
- ✓ 남악신도시 5분, 목포 10분, 광주 40분거리
- ✓ 몽탄~일로간 고속도로근접
- ✓ 시세 - 42억(평당 70만원)
- 문의. 010-6834-7400